

자아효능감과 미래변화의 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고자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자아-효능감(self-efficacy)’**입니다. **자아-효능감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원하는, 남이 나에게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자아-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여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미래사회 생존확률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상황대로 파악하려고 애씁니다.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며,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확장된 것을 경험합니다. 변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므로 다양한 변화를 예측하며,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에 대해 책임감을 지닙니다.**



미래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미래사회를 예측한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토론해보세요

이 미래가 실현된다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의견을 나눠보세요. 또 자신은 어떤 미래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그 미래가 실현되려면 누구와 함께 어떤 자원을 동원해야 가능한지 생각해봅시다. 자녀들과 함께 이러한 미래놀이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성공경험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서 무슨 방법과 생각으로 미래를 실현했는지 파악해보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 실현에 대한 간접경험**인 셈인데,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의 미래실현 경험은 아이들에게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중요한 간접 경험이 됩니다.** 꼭 자신의 경험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성공 경험을 읽어보면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지요?



셋째,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꼭 미래학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동네 어른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자신의 미래를 말해보고 실현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격려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 말을 듣다보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주 “너는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것은 이런 점에서 꼭 필요합니다.**

넷째,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보세요

“나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것이다.” “나는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 “이 미래가 실현된다면 나 뿐 아니라 나의 후손들도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비전을 갖게 되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전하려는 마음이 지속됩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미래 비전을 만들어보세요. 개인의 미래 비전도 좋고, 가족의 미래 비전도 좋습니다.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상담사례로 보는 학부모를 위한 직업진로가이드」)

안전과 환경을 책임지는 직업들



국내에는 14,000여 개의 직업이 존재합니다. 매년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기도, 없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직업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더욱이 기존 직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도 높아 새로운 직업발굴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숙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거나 중장기적으로 향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 중 '안전과 환경'에 관련된 직업을 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요? 자녀와 함께 새로 알게 된 직업에 대해 설명해주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온실가스관리컨설턴트

기업에서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일은 비용절감 뿐 아니라,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 온난화를 둔화시켜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도 기여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세우고,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기업의 경영전략을 자문하는 '온실가스관리컨설턴트'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 어떻게 준비하나요?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며, 이공계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도에 대응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포함하므로, 경영, 경제 및 회계 관련 지식도 중요합니다.

√ 진출하는 곳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업체 및 공공기관, 기후변화 및 환경컨설팅 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전문가

서울의 한 구립도서관에 '푸른 씨앗(G-SEED)'을 상징하는 이름표가 달렸습니다. 도서관 건물의 전력소요량 30%를 지열에너지로 활용한 점과 도서관에 비오톱(생물군집 서식공간)을 조성한 점,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점을 인정받아 '녹색건축 그린 1등급' 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녹색건축 인증제가 실시되면서 '녹색건축전문가'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전문가는 **건축물이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이 되도록 설계·시공 안을 계획하고 검토하며, 녹지 등의 생태공간 조성, 에너지 효율 고려, 친환경 자재 사용 등을 통해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을 설계**합니다.

√ 어떻게 준비하나요?

건축과 환경 분야 지식과 기술이 융합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건축설계를 기본으로 환경과 관련된 학문적 배경을 갖춘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 진출하는 곳은?

녹색건축 전문기업·인증기관 등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이트

그린투게더(녹색건축포털), 녹색건축인증제

화학물질안전관리사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사고가 종종 발생하면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관리사는 법 개정 등으로 화학물질 관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육성되는 전문인력입니다. 이들은 **화학물질의 등록과 위해성 평가를 대행하고, 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계획서 작성과 관리,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어떻게 준비하나요?

화학, 안전, 환경 관련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세심함, 신중한 성격이 요구됩니다.

√ 진출하는 곳은?

화학물질 관련 환경규제 대상인 모든 사업체(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상당사례로 보는 학부모를 위한 직업진로 가이드」)